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118th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32~34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필소나

[A]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곳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슬(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섯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댕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B]

- 허난설헌, 「규원가」 -

\*다시: 시기가 많음.  
\*면목가증: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들흔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입 그려 우는 눈물은 옹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쭈 하나니

[C]

- 작자 미상 -

32.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 ③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① (가)에서 ‘실슬이 상에 울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들’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⑤ (나)의 ‘후루룩 비쭈’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